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6

4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품(45x53) · 이가은

* 이가은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현대미술전공
 불교의 불이(不二)사상을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16 / 4

다시 읽는 산방한담	4	운문사의 자매들에게
처음 마음으로	8	불살생의 공덕
옛날의 금잔디	14	그 집 앞
숨어서 피는 꽃	18	시각장애인의 아들 퇴소식
문현철의 병영칼럼	22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
아름다운 마무리	26	벼랑 끝에 내몰린 삶 속에서도 살아 할 단 한 가지 이유
따뜻한 이야기	28	잊지 못할 주례사
사색의 풀	30	사는 밑절미가 된 <발원>
향기나는 우체통	32	무소유와 나
아버지와 함께한 하루	34	스님의 입적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37	'비난 판단 평가'
시심청심	40	元宵玩月(원소완월)
자비의 등 달기	41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특별보고	42	중앙모임 2015년 결산, 2016년 예산안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4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6년 4월 1일 발행 / 통권 254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운문사의 자매들에게

글·법 정(法頂)

봄이 옵니다. 그곳 호거산(虎踞山) 자락에도 봄기운이 넘치겠지요. 운문사에 다녀온 지도 몇 해 되었습니
다. 운문사를 생각하면 백서른 절의 흰 고무신이 섬돌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던 그 광경이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절마다 섬돌 한결에 조고각하(照顧脚下)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답니다. 신발을 제자리에 벗어 놓았는지 살펴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자기가 서 있는 발부리를 돌아보라는 법문이지요. 수행자는 항상 자신의 현 존재를 되돌아보면서 거뜩거뜩 형성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반성이 없으면 일상적인 타성에 젖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그런 직업적인 중이 되고 맙니다. 강원(講院)은 더 말할 것

도 없이 출가 수행자의 기초 교육기관입니다. 단순히 경(經)·율(律)·논(論) 삼장(三藏)만을 배우는 곳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글도 배우지만 행(行)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사실 글은 절이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절에서보다도 밖에서 훨씬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은 도량이 아닌 데서는 제대로 배우고 익히기가 어렵습니다. 삼장과 수행이 똑같이 한 부처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 흔히 강원의 학인이라면 글만을 배우고 익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종교의 본질은 글이나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행에 있습니다. 요즘처럼 무

행(無行)의 무리들이 설치하는 세태에서는 더욱 승가의 청정한 행이 귀하게 요구됩니다. 해(解)와 행(行)이 하나를 이룰 때 건전한 인격이 형성됩니다.

행이 없는 해는 공허하기 쉽고, 해가 따르지 않는 행 또한 맹목적인 데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해행일여(解行一如)에 대한 신(信)이 굳게 서야 합니다. 이 기회에 강원의 학인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쓸모 있는 공부를 하십시오. 강원이 출가 수행자의 기초 교육기관이라면, 수행자로서 평생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하루 종일, 글 몇 줄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비교육적인 늪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정해진 교과 과정 외에도 개인적으로 더욱더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학생들을 보십시오. 하루 여덟, 아홉 과목씩 소화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배운 것은 그대로 자



기 자신의 것으로 수용되어 생활화되고 인격화되어야 합니다. 한번 배운 것은 남에게 가르쳐 보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오 년 혹은 오륙 년 걸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나서도 병어리가 된다면 배우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배운 것을 밑천으로 법문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글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자기 사유를 거쳐 자기 것으로 재창조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용처(用處)가 있는 공부를 하십시오.

둘째, 개성과 특성이 있는 수행자가 되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남과 다른 재능과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생(多生)에 익힌 업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묵히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선용하도

록 해야 합니다. 개인의 재능과 특성이 한테 모이면 건전한 우주적인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공장의 제품처럼 똑같거나 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 사람의 석가모니는 필요 없습니다. 수행자일수록 자기 빛깔을 지녀야 합니다. 꽃들을 보십시오. 다른 이름을 가진 꽃들은 같은 꽃이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 세계를 활짝 열어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출가 수행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여성적인 속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출가 장부의 입을 익혀야 합니다. 여러 자매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여성의 옷이 아닙니다. 당당한 장부의 옷입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는 모습이 곧 그 사람의 생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새로운 그 자신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한 장부란 곧 남성을 가리킨 말이 아닙니다. 여성이 어떻게 남성이 될 수 있습니까. 아녀자가 되지 말고 대지의 어머니가 되고 불모(佛母)가 되라는

말입니다.

넷째, 여럿 속에 섞이면서도 은자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거둬들여 구축해나가려면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행자는 진정한 고독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고독을 모르면 때가 묻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이 적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말로 다 쏟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말이 많으면 마음이 산란해질 뿐 아니라 속이 비게 됩니다.

다섯째, 수행자는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야 합니다. 그 어디에도 간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흐르는 물은 영원히 살아 있듯이 수행자도 또한 더 넓은 바다를 향해 끝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핀 꽃은 어제의 그 꽃이 아닙니다. 수행자도 꽃처럼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야 합니다.

학인은 영원한 구도자입니다. 무엇보다도 탐구하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탐구하는 노력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돌레의 온갖 시

류에 물들고 맙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곧 자기 형성의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한번 놓쳐버린 시간은 다시 되찾을 수 없습니다. 졸지 말고 항상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온 세상이 잠든 시각에도 출가 수행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식구가 230명으로 늘었는데, 운문사 찬이 더 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짜게 먹지들 마십시오. (1983)

- 물소리 바람소리 중에서

2016년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선정 및 장학증서 수여식

시민모임 (사)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께서 주창하신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취지와 길상사를 무주상보시한故김영한(길상화 보살)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의미로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을 고등학생 대상으로 매년 선정하여 1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모임의 장학사업은 법정 스님께서 송광사 내 불일암 시절 자신의 인세를 아무도 모르게 장학금으로 사용하신 무소유 정신과 길상사를 무주상보시한故김영한(길상화 보살)님의 무소유 정신을 이어받아, 본모임 창립시(1994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2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은 4월 15일(금) 진행됩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거행될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일반고, 특성화고, 과학고, 불교종립학교에서 추천받은 학생과 사회복지사, 지역모임 사무국, 회원들께서 추천하신 학생들로 선정되었으며, 장학생에게는 한 해 동안의 수업료와 학교운영회비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관심있는 회원들께서는 참여하시어 격려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 장학생 선정 발표 : 2016년 4월 5일(화)
- 장학증서 수여식 : 2016년 4월 15일(금)
- ※ 자세한 내용은 본모임 홈페이지 참조

불살생의 공덕

글 • 덕일(德日)

며칠 전이 경칩(驚蟄)이었습니다. 땅속에서 잠자고 있던 곤충, 동물, 식물들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경칩은 옛날 연인들이 서로 은행을 주고받고, 밤이 되면 은행나무 밑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칩에는 농사 준비를 위해 농기구를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불자 여러분께서는 정월이라는 말을 잘 되새겨야 합니다. 바르게 사는 달, 몸과 마음을 삼가서 1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을 많이 짓는 달이라 하여 ‘정월(正月)’이라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경칩 이후에 세상 밖으로 나온 동물, 곤충, 식물을 상하지 않도록 들판에 불을 놓지 말라는 금지령이 있었습니다. 불교사상에 따

라서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러한 법령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날씨가 좋아지면서 야외에 나가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정월에 열심히 기도해서 복을 많이 쌓았다 해도 야외에 나가서 살아 있는 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 먹고 동물을 구워 먹는 행위를 하면 그 기도는 무공덕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왜 살생을 금하는가? 잘 아시겠지만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일찌감치 살생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

요. 부처님 당시 왕사성에서 5백 리 떨어진 곳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백 명가량의 주민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짐승이 풍부했기 때문에 굳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팔고 또 고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멀리 헤안으로 바라다보니 너무 많은 살생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밝은 지혜로서 저 무지한 중생들을 일깨워야겠다는 마음을 내서서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의 남자들은 짐승을 잡으러 다들 나가고 마을에 아녀자들만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을로 성큼성큼 걸어 오시는데 눈부실 정도로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를 본 한 여인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기도 환칠하고 미간에서 백호 광명이 나는가 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여자들이 모두 모여 나무 그늘 아

래 있는 부처님을 보았지만 예사롭지 않은 사람으로만 생각했지 부처님인 줄은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무 밑에 앉아서 “살생을 하면 과보가 따르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살생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점심 시간이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나저러나 점심때가 되었는데 저희가 음식을 조금 준비했으니, 함께 드시지요.”

고기를 잘 익혀서 가지고 온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래의 법에 보면 중생을 잡아서 그렇게 음식을 먹는 적이 없다.”

부처님의 법과 진리에서는 일체중생 개유불생(一切衆生皆有佛性), 살아 있는 모든 것에는 불성이 있는데 그 불성을 가진 존재를 잡아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먹을 것도 많은데 왜 고기를 먹느냐. 다섯 가지 곡식과 온갖 채소가 있는데 그것을 먹어도 되고,

나는 방금 공양을 하고 왔기 때문에 공양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고기를 잡는다면 훗날 그 과보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불살생의 소중함, 살생을 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동안 듣지 못하던 얘기를 얼굴이 환하고 예사롭지 않은 분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니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여자들은 하던 일을 제쳐놓고 부처님 앞에 둥그렇게 모여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짐승을 잡으러 나갔던 남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이면 동구 밖에 늘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 간 걸까. 마을로 들어와서 나무 밑에 와 보니 여자들이 전부 거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멋진 남자가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남자들은 몹시 화가 나서 화살을 겨누고 칼을 들고는 어찌 감히 들어오지 못

할 곳을 들어와서 아녀자들을 희롱하느냐며 죽이려고 덤벼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그 앞을 가로막으며 “이분은 부처님으로 살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오신 귀한 분인데 어찌 부처님을 죽인다는 말입니까?” 여자들은 이들을 가로막고서 부처님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여차여차해서 이 마을까지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남자들은 “부처님 저희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부처님을 해치려 했으니 정말 참회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다들 부처님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살생을 하게 되면 어떠한 과보가 있고, 또 살생이 어떻게 안 좋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서는 계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널리 사랑하여 중생을 구제하면 열 가지 복이 있어 그림자처럼 그 몸을 따르리라.

누워도 편안하고 일어나도 편안하고 잠잘 때는 흥한 꿈을 꾸지 않습니다.

하늘은 자비와 사랑으로 보호하고 독이나 흉기의 피해를 받지 않네.

물이나 불에도 다치지 않고 사는 곳마다 이익을 얻으리라.

죽은 후에는 범천에 올라가리니 이것을 열 가지 복이라 하네.

살생을 하지 않으면 대단한 복덕을 가집니다. 살생하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또 중생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이렇게 열 가지 공덕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마을 사람들은 환희심을 내고 다시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지 않고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부처님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쭙었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왕사성으로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다섯 가지 곡식의 씨앗과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빤비사라 왕에게 청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한 달을 살아가야 하는 데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의 기피를 입고, 또 지난 한 달을 살아오며 잘못된 부분을 참회하기 위해서 이 초하루법회에 오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 살생을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 연지 대사가 설한 일곱 가지 불살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일날 살생하지 말라. 세상에 태어났는데 한쪽에서 똥가를 죽여 버린다면 세상에 태어나는 자의 복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자식을 낳거든 살생하지 말라.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그러한 기쁨을 만끽하고자 돼지를 잡고 소를 잡거나 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제사를 지낼 때 살생하지 말라. 조상의 기일이나 절에서 재공양을 지낼 때는 절대 살생하시면 안 됩니다. 재자들이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면서 선업을 지어야 하는데 부처님의 법식을 들려주는 날에 살생을 하게 되면 영가 분들을 오히려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넷째, 혼례일에는 살생하지 말라. 경사스런 혼례일에는 절대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연회일에는 살생하지 말라. 주위 사람들과의 인화를 위해 파티를 하는데 육고기나 물고기를 살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여섯째, 소원을 성취하는 기도 시에는 살생하지 말라.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부처님 법에 의해서 부처님께 예배를 올려야 그 청결한 마음으로 인해서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살님들은 절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성취 기도를 하는데 거사님들께서 밖에 나가서 낚시를 한다면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일곱째, 중대한 경영을 할 때는 살생하지 말라. 쉽게 말해서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는 분은 살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긴장되고 초조한 가운데 에너지

를 모으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야 하는데 살생을 하면 에너지가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송광사 불일암 공양간 앞에는 헌식대가 있습니다. 은사이신 법정 스님께서는 쟁반처럼 동그렇게 항아리 뚜껑처럼 생긴 헌식대를 늘 놓아두고 짐승이나 새에게 먹이를 주셨습니다. 은사 스님께서는 항상 남은 음식이 있으면 거기에는 부어서 짐승들이나 새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일찍이 은사 스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는 자비심을 배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훗날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4대강 개발을 반대하셨습니다.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천하셨듯이 불자님들도 단독주택을 갖고 계시거나 시골집에 가지거든 헌식대를 마련해 놓고 동물들에게 날짐승들에게 먹이를 제공해 주는 것도 방생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님을 모시고 불일암에서 지낼

때의 일입니다. 산까치가 얼마나 욕심이 과한지 먹이를 먹고 나서 배부르면 다른 새들이 먹게끔 놔두어야 하는데 그것을 몰아다가 대나무 구멍에다 쑥 밀어 넣습니다. 새참으로 먹기 위해 그런가? 자기가 먹고 난 후 안 먹으면 될 것을 남은 것을 몰아다가 구석구석에 숨겨 놓습니다. 나중에 산까치가 숨겨 놓은 먹이를 꺼내 먹는 광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박새가 알을 낳기 위해 오동나무에 구멍 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구멍에 알을 낳는데 오동나무 밑에서 돌아다니던 구렁이들이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는 그 알을 먹으러 오동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박새는 알을 지키기 위해 위로 올라오는 구렁이의 머리를 쪼아 버립니다. 그러면 구렁이가 가끔 땅에 떨어지는데 얼마나 높은 데서 떨어지는지 정신을 못 차려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 바위면 바위, 물이면 물, 나무면 나무, 또한 채소까지도 생명이 있는 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

리가 채소 하나를 먹더라도 생명 존중 사상을 갖고 자비심을 갖고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달까지 혹시 살생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곤충을 밟았을 수도 있고 야외에 가서 낚음식을 먹었을 수도 있고, 또 새끼를 벤 고기라든지 원치 않는 고기를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오늘 초하루법회 때 참회진언을 통해서 참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지금까지 살생과 자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살아가시면서 살생을 금해서 열 가지 공덕이 다음 생까지 이어지도록 자비스런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 불기 2560년 2월 초하루 법문
(2016년 3월 9일)

그 집 앞

글 • 윤언덕

“행복은 항상 그대가 손에 잡은 동안에는 작게 보이지만, 놓쳐 보라, 그러면 곧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지 알게 될 것이다.” (막심 고리키)

아내와 뒷산에 등산 갔다 내려오면서 15년 전 살았던 옛집 근처에 간적이 있었다. 우리가 살았던 골목이 눈에 띄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그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옛집은 부모님이 과거 몇십 년에 걸쳐 힘들게 일구어 놓은 재래식 이층 가옥이다.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그 집에서 어머니와 내가 살았는데, 내가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남에 따라 점점 식구가 늘었다. 집은 우리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방이 부족하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내가 동네 앞 대규

모 아파트 단지로 이사한 탓에 그 집은 이제 추억 속의 집이 되어 버렸다. 어머니는 함께 가자는 나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홀로 살기를 고집하셨다. 이후 어머니는 내가 살던 방을 교우(敎友)에게 전세 놓은 후 세입자 가족과 그곳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그 집은 장남인 큰형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자 형은 짹짜게 그 집을 팔아버렸다. 나와 미리 교감이 있었더라면 부모님의 분신과도 같은 그 집을 내가 매입할 수도 있었기에 항상 서운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30년간 살던 그 집은 이제 남의 집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날,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오랜

만에 그 집을 보니 민감이 교차했다. 마침 그 집의 대문은 반 정도 열려있었다. 대문 안의 마당에는 지금은 만날 수 없는 부모님이 심어놓은 배나무와 향나무, 내가 심었던 철 따라 피는 장미꽃과 목단 그리고 수국, 그 아름다운 꽃나무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런데 집주인은 밖에서 대문 안을 들여다보는 우리 부부를 발견하고는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는 기분이 들었는지 우리가 뭐라고 말할 틈을 주지 않은 채 대문을 ‘쾅!’하고 신경질적으로 닫아버렸다.

집주인이 우리를 향해 누군데 남의 집 대문 안을 들여다보느냐고 물었다면 과거 이 집 주인이었노라고 대답하며 오랜만에 옛집 근처에오니 감회가 깊어서 그러는데 집구경을 해도 되겠느냐고 부탁했을 텐데 아쉬움이 컸던 날이었다. 왜 그 집 근처에 갔느냐 하면 이유는 탄 곳에 있었다.

아내와 나는 즐겨보는 텔레비전 방송에서 우리가 평소 슈퍼에서 구

매해서 먹고 있는 된장이 100% 메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밀가루에다 메주를 약간 넣어 만든, 그러니까 된장 맛을 나게 만든 밀가루 소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방송을 본 후, 이미 사들인 된장의 플라스틱 용기에 붙은 라벨에 깨알처럼 적힌 성분표를 보니 과연 콩 성분은 10%도 되지 않았고 주성분이 밀가루와 착색제, 방부제 등 화학 약품 범벅임을 발견했다. 그래서 과거 어머니처럼 집에서 된장을 직접 담가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메주는 성당이나 사찰의 바자회나 시골 오일장, 인터넷 농협 등에서 사더라도 문제는 메주를 된장과 간장으로 만들 용기인 전통 항아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였다. 동네의 재래시장에 들렀건만 용기 가게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과거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용기가 꽤 많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단지들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을 보았던 기억이 되 살아났기 때문이다. 과거의 연을 이

야기하며 두어 개의 항아리를 돌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행심이 발동한 것인데 현재의 집주인에게 말도 못 걸고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셈이었다.

골목을 나오면서 아내는 내게 이야기했다.

“당시 살 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 집에서 두 아이를 낳고 애들은 초등학교까지 할머니의 품에서 품성 바르게 자랐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행복은 누리는 순간에는 알 수 없고 대부분 세월이 흐른 후에 그 본질을 알게 되는 법이다. 그 시절, 우리가 살았던 그 옛집에는 어머니의 친구인 성당 교우들이 자주 집에 놀러 오곤 했다. 빈한한 형편의 할머니들은 초등학교생인 우리 아이들을 보고

“너희는 천국과 같이 좋은 집에서 많이 배운 부모를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라는 말을 하곤 했다.

당시 나는 외풍이 세고 주차 공간

이 없으며 좁고 불편한 구조의 재래주택에 염증을 느끼고 있어서 ‘저 할머니들은 천국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행복이란 상대적인 것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당시 우리 가정을 보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친한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한 동네에 두 여자가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두 여인의 남편들은 서로 대조적이었다. 한 쪽 아줌마의 남편은 일요일만 되면 아무 곳도 가지 않고 온종일 집에서 TV를 보거나 아니면 낮잠을 즐겼으며, 또 다른 주부의 남편은 일요일만 되면 낚시가방을 둘러메고 친구들과 낚시를 하러 가서 일요일은 남편과 함께 지내는 날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집에만 있는 남편의 부인은,

“아유 지겨워, 제발 등산을 가든지 낚시를 하러 가든지 나갔으면 좋

겠다.”고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았고, 일요일만 되면 낚시를 하러 가는 남편의 부인은, “제발 일요일만은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상대방의 남편을 부러워했다.

이처럼 현실에 대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의 것을 원한다. 집이 없어서 해마다 이사를 하는 사람은 이사를 하지 않고 한 곳에서 계속 살았으면 하고 바라고, 자기 집이 있어서 한곳에서만 몇십년을 사는 사람은 제발 이사 좀 가 봤으면 하고 바란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하고, 그렇게 할 때 행복도 누릴 수 있다.

즉 남을 부러워하기에 앞서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이 최고라고 인정해줘야 하고, 그렇게 할 때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행복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날, 그 집 앞을 지나오면서 필요한 용기는 구하지 못했지만 지난 시절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돌아서서 대문을 열면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 느낌도 말이다.

일요특강 - 길상사 오감(五感) 자기경영 아카데미

원호와 요석처럼 살수 있다면

두 번째 초청 강사. 김선우(시인, 작가)

4월 24일(일) 오전 11시 / 길상사 설법전

시인이자 소설가, 산문가인 김선우는 1996년 <창작과비평>겨울호에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시집으로 <내 혀가 입 속에 갇혀 있길 거부한다면>, <내 몸속에 잠든 이 누구인가> 등이 있다. 장편소설로 <발원> 등이 있다. 현대문학상, 천상병시상 등을 수상했다.

시각장애인의 아들 퇴소식

글 • 김정희(한국부름의전화 대장)

“대장님 우리 아들 편지 왔어요. 편지 읽어줄 봉사자 좀 보내주세요” “편지 읽어 달라고요? 그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네요. 그 편지 읽는데 5분이면 족할 거예요. 그런데 편지 읽어주러 가야 하는 활동자라면 곳에서 가게 되면 한 시간 받은 걸릴 것이니까 왕복 3시간이 될 것이고 그보다 가까운 곳에서 간다 해도 한 시간은 걸릴 것이니까 왕복 2시간이 되겠죠. 당신이라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정말 편지가 읽고 싶다면 편지를 들고 뒷집에도 가보고, 앞집에도 갈 수 있죠. 그것도 안 된다면 큰길로 나가서 “편지 좀 읽어주세요.”라고 부탁하면 누구든지 다 읽어 주지 않겠어요?”라고 했다.

“아이고, 대장님 무슨 말씀예요. 우리 아들 편지 받고 너무 기뻐서 편지 들고 뒷집으로 갔지요. 현관문에서 그 집 딸을 만났는데 편지 좀 읽어 달라고 했더니 바빠서 그랬는지, 내가 싫어서 그랬는지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기가 죽어서 집으로 와서 울고 있다가 대장님께 전화했는데 너무 한 것 아닌가요?”

“아, 그래요? 시도해보기는 했네요. 그렇다면 도움받을 자격 있지요. 기다려 보세요.”라고 말하고 그 시간부터 자원활동자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다행히 가까운 곳에 자원활동자가 살고 있어 편지 읽어줄 것을 부탁했다.

자원활동자가 시각장애인을 찾아갔다. 시각장애인은 아들이 입대하

기 전 심한 독감에 걸려 먹지도 못하고 앓지만 하다 입대한 것이 마음이 아프다며 아들이 보낸 편지 내용이 궁금하여 귀를 모으고 편지 읽어 주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자원활동자는 편지를 펼치는 순간 읽지 못하고 망설였다. 아들이 보낸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부대장이 모든 신병 부모님께 일률적으로 보낸 퇴소식에 초대한다는 인쇄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들이 어머니께 보내는 애정 담긴 편지를 기대했을 텐데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보다 더한 것은 편지 한 장 읽을 수 없어 자원활동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시각장애인이 무슨 수로 아들의 퇴소식에 참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어머니에게 퇴소식에 초대한다는 말은 어쩌면 놀리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되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이 되어 자원활동자의 말문이 막혀버렸다. 자원활동자는 인쇄물을 읽어주고 도망치듯 그곳을 벗어났다.

다음날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전화

가 다시 왔다.

“대장님 염치없지만 우리 아들 퇴소식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부탁을 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한 일이었다. 새벽 일찍 길을 떠나 늦게 돌아와야 하는데 적당한 자원활동자를 찾을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 자원활동자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다려보세요. 알아볼게요.”

그 말에 이미 결정이라도 된 것처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그런 시각장애인의 말이 무거운 짐이 되어 내 어깨를 눌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도움 줄 자원활동자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로 “예” 라고 대답하는 자원활동자가 없었다. 초조한 몇 날이 흘렀다. 퇴소식이 2일 앞으로 다가왔다.

며칠 전에 아들이 군에서 제대했다는 자원활동자가 생각났다.

자식 기르는 마음은 다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 자원활동자에게 전화했다.

“아드님 제대했다면서요? 축하합니다. 아드님 퇴소식에 갔었나요?” “그럼요. 퇴소식뿐 아니라 자주 면회를 갔어요. 우리 아들 입대하고 잠도 잘 자지 못했어요.”

“시각장애인은 더하겠지요?”

“글쎄요? 시각장애인은 더할지 모르겠군요.” 바로 이때다 싶었다. “실은 시각장애인이 아들 퇴소식에 가고 싶었는데 동행해주면 좋겠는데요” “강원도라고요? 저 운전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저씨께서 자영업 하시는 분이시니 부탁하면 시간 내주시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못해 “남편과 의논해보고 대답할게요.”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초조함으로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다.

마침내 자원활동자의 전화가 왔다. 긴장감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수화기만 들고 있는데 “대장님 우리 남편과 아들도 같이 간대요.” 순

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

“감사합니다. 퇴소식이 10시에 있으니 늦지 않도록 새벽에 떠나야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하자 시각장애인은 울먹이며 기뻐했다.

퇴소식 날이 왔다. 자원활동자는 새벽에 김밥을 싸고 뜨거운 커피를 준비한 후 남편과 아들과 함께 시각장애인 집으로 갔다. 시각장애인도 아들을 먹이려고 찰밥을 짓고 통닭을 준비해 두었다. 간밤에 아들이 찰밥을 맛있게 먹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새벽부터 지었다고 한다.

일행은 시각장애인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신병교육훈련소로 갔다. 10시에 식이 시작되었다.

일등병 계급장을 달아주는 순서가 되었다. 어머니가 달아주는 사람, 애인이 달아주는 사람 등 모두 가족들이 달아준다. 그런데 자원활동자는 시각장애인의 아들을 본 일이 없고 시각장애인 어머니는 아들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없으니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안내 사병에게 김 아무개를 찾아

달라고 했다. 안내 사병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가 직접 찾아가세요.”라고 했다. “내가 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이라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 말을 듣자 안내 사병이 재빨리 시각장애인의 아들에게로 갔다. 아들은 어머니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 했는지 스스로 이등병 계급장을 달면서 울고 있었다.

아들의 안경 너머로 눈물이 흘러 내려 옷깃에 떨어지고 있었다.

안내 사병은 “야, 인마! 어머니가 오셨는데 울기는 왜 울어” 하며 어깨를 가볍게 쳤다.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신병 아들은 어머니를 돌아보더니 달려와 어머니를 부둥켜안고 영영 소리 내어 울기 시작한다. 시각장애인도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소리 내어 운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자원활동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퇴소식이 끝나고 장병과 가족들은 준비한 여러 가지 음식을 풀어놓았다. 시각장애인 어머니도 손수 지

은 찰밥과 통닭을 풀어놓았고 자원활동자도 김밥과 커피를 꺼내 놓았다. 신병 아들은 김밥을 어머니 입에 먼저 넣어주고 자신도 김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린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자원활동자의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자원활동자를 바라보더니 눈물이 고인다.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신병 아들이 좀 더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타고 간 차 속으로 두 사람을 들어가게 한 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날씨는 쌀쌀해지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마침내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다. 신병 아들은 시각장애인 어머니에게 경례를 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가 멀어지는 그 길을 따라 아들의 시선은 계속 따라오고 있었다. 아들이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점점 작아져 작은 점으로 변했다.

시각장애인 어머니도 아들을 향해 흔드는 손길을 멈추지 못하고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

글 • 문헌철 (조선대 법학과 외래교수)

2만여 명이 사망, 실종된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5주년이 되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3시 27분 후쿠시마 원전에 첫 번째 쓰나미 도달에 이어서, 3시 35분경 거대한 두 번째 파도 쓰나미가 10m 콘크리트 방조제를 부수고 후쿠시마 원전을 덮쳤다. 해수면보다 겨우 13m 높은 곳에 위치한 터빈건물의 비상용 디젤발전기가 정지했고, 설상가상 외부에서 공급되는 비상용 교류전력이 끊기면서 원자로의 핵심 안전 시스템인 비상 노심 냉각장치 물 공급 불능상태로 인하여 후쿠시마 원전의 냉각기능이 정지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지진이 야기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일본 원자력 비극이 시작된 것이다. 안전신화의 일

본, 그것도 수많은 지진을 일상 생활처럼 격으면서 사는 일본인들, 동양 최대의 19명의 과학분야 노벨상을 배출한 과학일본이 원자력발전소의 핵심안전기술사항인 냉각시스템의 안전에 대하여 무감각했을까? 평소에도 거대한 파도가 일상적으로 일렁이는 태평양 연안에 인접한 원자력 발전소의 그 지리적 특징으로 인한 냉각시스템의 취약점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지 참으로 아리러니하다.

국가 안전 대진단이 시작되었다. 안전 위험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순회하였다. 실무자와 주민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하면서 국민안전체의 국가 안전 대진단

에 대한 국민적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국가 안전 대진단이 재난원인에 대하여 단순히 기계적인 측정을 하는 일회성 행사인가? 필자는 동행하면서 국가 안전 대진단 속에 숨어 있는 인문학적 의미를 몇 가지 깨닫게 되었다.

첫째, 국가 안전 대진단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가? 아니다. 국민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운동이어야 한다. 그것은 위험 방지로 발생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 엔지니어와 공무원들의 '그들만이 하는 일과 캠페인'이 아니라 5천만 국민들 모두가 위험요소를 발견하는 국민운동인 것이다.

둘째, 국가 안전 대진단은 '용기있는 안전문화 행복 휴머니티 국민운동'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험요소를 보고도 설마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향이 있었다. 사소한 위험들을 괜히 지적하고, 말했다가 눈치 없는 사람이 되고,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재수 없는 소리'를 한다고 핀잔을 들을까 봐 그냥 지나치는 것이 깊숙이 스며든 하나의 문화였다.

위험에 대한 지적의 소리를 하는 것은 분위기를 그르치는 것이라 생각했고, 미리 사고가 날 것에 대한 예견을 하는 것은 불길한 징조를 불러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이것은 직장 상사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힐난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입을 다물게 하였다. 뻔히 눈에 보이는 위험을 묵과하고 지나치는 아주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나약한 방관자였으며, 사고 발생을 묵인하는 나쁜 문화를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성수대교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사고를 비롯한 수많은 참사들이 발생했으며, 그 뒷면에는 바로 이러한 '두려운 나쁜 문화'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용기있는 행복 안전문화'는 나와 이웃을 보호하는 휴머니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

는 문화이다. 그래서 어느 장소, 어떤 상황에서든 눈에 보이거나 예상되는 크고 작은 위험요소에 대하여 누구든지 지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위험을 예지하고 지적해 주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 바로 이러한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용기있는 안전 문화 행복 휴머니티'이며, 국가안전대진단의 궁극적 목적이다.

셋째, 국가 안전 대진단은 '위험요소 친밀감 운동'이다. 위험요소를 회피하고, 숨기는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든지, 어디서든 지적하고, 말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친밀감 운동'이다. 인간관계를 비롯한 인생사 모든 일들은 친밀감을 갖고 있으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이 세상만사의 일들이다. 전문가들의 기초자치단체 순회, 위험요소 현장 답사는 위험요소에 대한 친밀감을 갖자는 메시지

를 지역주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넷째, 국가 안전 대진단은 현장에서 발로 확인하는 국민운동이다. 국가 안전 대진단은 공무원과 전문가가 책상에서 토론하고 캠페인 벌이고 끝내버리는 관념적 탁상행정이 아니라, 민관군 모두가 현장에서 발로 확인하는 국민운동이다. 국가 안전 대진단은 단순한 장비로 위험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찾아가고, 눈으로는 확인하는 국민운동'인 것이다.

다섯째, 국가 안전 대진단은 '희망과 긍정의 국민운동'이며, '지금 바로 시작 국민운동'이다. 벌어질 일들은 결국 벌어지고야 만다는 운명론적인 비관이 아니라, 모든 재난은 사전에 반드시 예방할 수 있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반드시 보호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긍정의 국민운동이다. 그리고 예측된 위험에 대하여 그 확인과 진단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즉시 확인하고 조치하는 '지금 바로 시작 국민운동'이다.

여섯째, 국가 안전 대진단은 국가 경제의 핵심적 에너지라는 것이다. 경제대국 일본도 16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아직도 그 경제적 타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 앞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자본'이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국가 안전 대진단을 통해서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녹색 나눔 장터 참가자(팀) 모집합니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생활 속에서 재사용과 자원순환의 녹색 문화를 공유하고자 작은 녹색 나눔 장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색 나눔 장터'는 4월에 시작하여 10월까지 넷째 일요일(월 1회 개최 예정)에 길상사 뜨락에서 진행하며, 회원님과 신도님이 즐겁게 참여하고 운영하는 장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장터 참여 품목은 오래된 물건을 새롭게 리폼한 소품, 직접 재배한 유기농산물, 수제 천연화장품, 재고로 남은 환경용품, 불교문화 창작품 등입니다.

개인이 참여할 때는 다른 사람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베품시장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가는 사전에 접수하여야 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불우이웃 돕기 기금으로 후원해주셔야 하며,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일회용 용기는 쓰지 않고, 장터가 끝나고 남은 물건은 기증하거나 잘 챙겨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올해 장터에는 헌 옷과 헌도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과 '녹색나눔장터'에 함께할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삶 속에서도 살아야 할 단 한 가지 이유

4월 결연 대상자- 김금자 어르신(가명)

올해 5살 이영한(가명) 어린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억척스럽게 움켜잡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김금자(가명) 할머니의 옷자락입니다. 영한이가 3살이 되던 해에 영한이의 엄마는 정신질환으로 일할 수 없게 된 남편을 원망하며 어린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김금자 할머니는 부모를 대신해서 영한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엄마에게 받은 상처때문인지 영한이는 낮은 사람을 경계하듯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할머니 옆에 붙어서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어뜨릴 것 같은 눈망울로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영한이는 “우리에게 반찬 만들어서 보내 주시는 곳에서 온 좋은 분이야”

라는 김금자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조금 안심이 되는 듯 옆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밥 쥐” 어느 날 아침 영한이의 목소리에 일어난 김금자 할머니는 영한이의 밥을 차려주기 위해 몸을 일으키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만성 질환인 관절염과 척추 질환의 통증이 심해 일어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배고파 울고 있는 손자를 껴안으며 할머니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평평 울었다고 합니다. 김금자 할머니가 손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영한이 곁에 있어 주는 것이라며 빨리 이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싶지만 불쌍한 것을 두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고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김금자 할머니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15년 전 남편이 식도암에 걸려 수술을 했으나 암이 재발해서 돌아가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식도암은 고치지 못했지만 없는 살림에 조금씩 모아두었던 재산을 치료비로 사용하면서 살던 집과 재산을 정리하고 보증금 2천 3백만 원에 15만 원을 내는 월세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2천 3백만 원도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 마련해서 정부 보조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들이 있지만, 정신적 질환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 김금자 할머니를 부양하거나 영한이를 돌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금자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어 월 약 75만 원의 수입이 있지만 세 식구의 생활비, 약값, 공과금, 영한이 유치원비 등을 사용하고 나면 5살 영한이의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요즘 우울증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한 김금자 할머니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주거 문제였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밀린 월세로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김금자 할머니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고 동사무소에 임대주택을 신청하긴 했지만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 몰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약으로 하루하루 버티시는 김금자 할머니에겐 집주인의 월세 독촉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입니다. 김금자 할머니가 새로운 주거지를 찾는 동안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생활 할 수 있도록 밀린 월세 255만 원(15만원*17개월)을 모금하여 김금자 할머니와 영한이를 돕고자 합니다. 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금자 할머니가 삶의 희망을 놓치지 않고 영한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봄처럼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잊지 못할 주례사



친한 대학 선배의 결혼식. 여느 결혼식처럼 잘 어울리는 신랑 신부의 모습에 부러움이 가득한 축하의 장이었습니. 그런데 같은 친구에게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배 집의 엄청난 반대 때문에 결혼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다는 이야기.

신부는 정말 천사처럼 아름답고 단아해 보였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결혼식 주례 선생님은 저의 대학 은사이자, 선배의 은사이기도 한 분이셨습니다. 이윽고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대머리를 딱 한 자로 표현하면 한문으로 빛 광, 즉 광(光)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신랑 신부가 백년해로하려면 광(光)나는 말을 아끼지 말고 해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세 치 혀입니다.”

하객들은 모두 진지한 눈빛으로 주례사를 경청하고 있었으며 은사님의 주례사는 계속됐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

고 해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보, 사랑해, 당신이 최고야!’ 라는 광(光)나는 말은 검은 머리가 대머리가 될 때까지 계속해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얀 장갑을 낀 선배의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배는 신부에게 수화로 주례 내용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좀 전 친구의 이야기에서 반대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어렵פות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은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주례사를 마쳤습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랑이 가장 아름다운 신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자는 행위로써 말하고 소인은 혀로써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혀로써 말하고 있고 신랑은 행위로써 말하고 있습니다.신랑 신부 모두 군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두 군자님의 인생에 축복이 가득하길 빌면서 이만 소인의 주례를 마칩니다.”

예식장은 하객들의 박수 소리에 떠나갈 듯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들리도록 표현하고, 들리지 않으면 보이도록 표현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표현하면 더 잘 들리고 잘 보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의류 리사이클링 소모임 강좌 참가자 모집

가정에서 입지 않는 의류를 재활용하여 생필품으로 재순환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로 3개월 과정의 무료 강좌를 매주 금요일 진행합니다. (현재 4월~6월 과정 참가자 모집) 문의: 02)741-4696

사는 밑절미가 된 <발원>

글 • 변택주(꼬마평화도서관을 여는 사람들 바라지)

“참 괜찮네, 싶은 사람과 얘기를 하다보면 늘 법정 스님과 맞닿아요. <무소유>가 없으면 늘 손목에 걸고 다니던 염주를 잃어버린 것처럼, 평정을 잃고 불안해하는 사람들…; 이 분들이 모두 법정 스님을 뵈었느냐 하면 아니에요.” 온 힘을 다 쏟아 <발원- 요석 그리고 원효>를 빚어낸 김선우 작가에게 여러 해 전에 들은 이야기다.

이 사람 김선우. 17살에 처음 원효를 만나 사랑해왔다. 그때부터 오랜 세월 품고 버려 빛은 <발원- 요석 그리고 원효>. “한때 저는 그리움이라는 강력한 부처에 사로잡혔으나 지금은 자유롭습니다.”라고 요석이 원효 눈에 눈부처를 그리며 한 말씀이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는다. “저는 성심을 다해 넘어지고 성심을 다해

일어날 겁니다. 곁에 있든 없든 제가 언제나 당신과 함께임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내 사람입니다. 내 사람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내 사람입니다.” 요석이 원효 꿈결에서 남긴 말씀이다. 한 마디 한 마디가 뻗속까지 파고든다.

어째서 <발원>일까? 소원과 소망엔 어릿어릿한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다 달라는 간절함이 깃들어있다면, 발원에는 ‘스스로 일어서 기어이 참다움을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거남이 소복하다. 모순과 이기심이 들끓는, 바로 여기서 다져올리는 발원 밑절미는 ‘더불어 살림’이다. 더불어 살림은 ‘남’을, ‘너’로 돌려 세워 ‘우리’를 이룰 때라야 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달리 ‘우리’라는 낱말을 많이

쓴다. 아내가 남편을 일컬을 때 우리 남편이라 하며, 외동도 서슴없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 어찌된 일일까? 아내가 ‘우리 남편’이라고 하는 까닭은 ‘나와 남편이 돌이면서 서로 떨어질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고, 외동이 ‘우리 어머니’라 하는 것 또한 ‘나와 어머니’가 돌이면서 서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말씀이다.

“하루가 영원 같습니다. 제 속의 모든 생각이 완전히 쉬며 온 마음이 원효 스님의 심신 회복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오니 스님이 저의 현재이십니다. 스님이 저의 영원이십니다.”

말해 놓고 조금 부끄러운 듯 요석의 얼굴이 붉어졌으나 원효를 바라보는 눈동자만큼은 흔들림 없이 맑고 투명했다. 서로의 눈동자 속에 든 눈부처를 바라보는 찰라가 영원임을 그 순간 알았다.

영원이란 시간성을 벗어난 말이로구나. 영원이란 바로 지금 이 순간, 생생한 현재로구나. 깨어 있는 현재만이 영원이구나!



이 꼭지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서로 바라보는 눈동자에 눈부처를 그리고 순간이 곧 영원인 흐름. 덧인 줄 뻗히 알면서도 오로지 사랑하는 한 목숨 살리겠다고 만백성 앞에서 승려라는 거룩한 거죽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져 한국불교 새벽을 연 원효 스님. ‘사랑’은 폭포를 거슬러 오르는 잉어처럼 ‘너’라는 신비를 거슬러 올라 오롯이 ‘우리’를 이루고야 마는 ‘숨결’이다. 우리가 본래 부처이니 ‘붓다로 살아야한다’고 드잡이하는 요석과 원효. ‘본래 붓다’는 ‘본래 청정’으로 ‘붓다로 살자’를 시로 풀어쓰면 ‘맑고 향기롭게’이다. 이제 <발원>은 내가 사는 밑절미이다.

<발원>의 저자 김선우 초청 일요특강

4월 24일(일) 오전 11시 / 길상사 설법전

무소유와 나

글 • 백영분(회원)

걸어서 30분 거리를 중학교 3년 내 내 통학하였다. 춥고 더울 때나 이른 아침이나 자율학습하고 늦은 귀갓길에도 걷고 또 걸어서 다녔다. 반면 학교 시간에는 마냥 걸어서 40~50분을 즐겁고 느긋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구경하며 사춘기의 세상을 바라보았다. 넉넉지 않은 청소년 시절엔 친지 어른들이 주시는 용돈과 친척 집 심부름 가서 받은 용돈이 생활의 기쁨이었고 누리는 행복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은 배고프고 힘이 빠졌지만, 군것질 따위는 생각도 못 했고, 가로수와 문구점의 화려한 색깔들의 소품 그리고 모퉁이 서점들 작은 꽃집과 남학교 운동장 긴 담벼락 옆으로 사색하는 시절이었다. 가끔, 정말로 가끔, 돈이 생기면

문구점이나 서점을 들어갔다. 문구점에서는 꼭 살 것이 있으면 이것저것 다 구경해보고 마지막으로 살 물건을 골라나오곤 했다. 틈만 나면 도서관을 이용하며 책을 빌려보곤 하였는데 어느 날 서점에서 손바닥 크기의 작은 책자를 보게 되었다.

「무소유' 소유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럼 안 가지고도 가진다는 말인가?」 주로 읽은 책은 철학서적과 문학이었는데 말 그대로 간결하면서도 눈에 쏙 들어오는 제목에 한 번 뽑아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내게는 책을 살 만한 여유가 없었다. 주인이 책을 너무 많이 읽고 있다는 눈치를 주기 전에 다시 꽂아두고 나와야 했다. 책을 사

고 싶다는 생각을 늘 옆두에 두고 돈을 모았다. 결국은 몇 번씩 서점에 들어가 눈여겨봤다가 샀다. 신선한 느낌 그리면서도 무겁게 다가오는 그 어떤 교훈, 인생의 지침서 같은 것이 내게 왔다. 고등학교와 대학을 마치고 나서 첫 직장 생활에서 다시 만난 '무소유' 이번에는 '법정 스님'이었다.

「불일암! 불일암! 언제 한번 가서 법정 스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한 번만! 한 번만!」 바쁜 직장생활에서 휴가를 내고 갈까 그럴 형편도 못 되고 생각 끝에 스님의 저서를 읽기로 작정하며 샵터시리즈와 스님의 신간 소식만 들으면 저서와 불경을 사서 읽게 되었다. 삶의 여유가 조금 생기니까 더 쉽게 사서 읽을 수 있었고 신간 소식은 나의 기쁨이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하신다. 서울 중심가 시내 작은 사무실을 거점으로 불일암에서 강원도 어디쯤 거처를 옮기셔서 당신의 뜻을 펴신다.

「가까이 계시네. 내 인생에서 어

느 날엔가는 만나 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에 점점 익숙해진 사회인이 되었다.

「맑고 향기롭게」에 동참하면 혹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하던 참에 BBS에서 김광석 음악 방송으로 알게 된 표가 바로 법정 스님과 김광석의 모습을 앞에서 볼 수 있는 일이 되었다. 가까이 갈 수 없었기에 먼발치서 뵈던 법정 스님 모습에서 뭐랄까, 힘이 내게로 다가왔고 얼음이 된 내 모습에 가슴은 벅찼다. 높이신 어른과 김광석 가수의 서정적 노래를 먼 관객이 되어 바라보았고 그날의 감격을 되뇌며 나날을 보냈다.

법정 스님 법회 때면 뵈고 싶어서 2시간씩 걸리는 거리를 연일 제치고 성북동 길상사를 올랐고, 스님과 조금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법당에서 삼배를 올리던 날들. 이제는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스님의 입적

글 • 김광석(나고아대학 교수)

세상은 슬픔에 빠져 있다. 한 스님의 입적으로 이렇게 슬픔에 빠져 들고 말았다. 무엇에 관한 슬픔인지 알 수가 없다. 뭔가를 잃었긴 잃은 모양이다. 다시 말하면 모르긴 해도 스님으로부터 뭔가를 원하고 있었다는 반증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아는 스님은 지금의 이런 모습을 원치 않았다. 돌아가신 지금 순간 슬퍼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니 어찌하겠는가. 이는 그전에 그분의 뜻에 우린 얼마나 귀 기울이며 살았는지, 아니 지금 이 순간은 어떠한지 돌이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스님의 입적을 슬퍼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부모와의 이별도 마찬가지로 생각

한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과과의 이별을 목전에 두고 한평생 쌓아 온 인연들을 아쉬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다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나 영향을 가져다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보내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목청을 높여 울부짖던 자식이 오늘 그 눈물을 잊고 살아간다면 가신 분에 대한 욕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가신 스님은 말이 없다. 그러나 세속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들이 분분하다. 모두가 자기변명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자기 그릇을 챙기기 위한 추한 시나위 같은 것일 수

도 있다. 우린 진정 그분의 입적을 아쉬워하기 전에 그분의 가르침에 충실하였는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나 역시 한발 헛디디면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 그런 자리에 서서 스님의 가시는 길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다.

나에게 정신적인 큰 지주였던 스님은 세속에서의 삶과 죽음이란 한낱 형상에 지나지 않다고 설법하셨다. 스님의 주옥같은 법문들이 내 몸 구석 구석 자리하여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숨 쉬고 있는데 왜 다들 돌아가셨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스님은 영생 불멸하며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영혼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와 스님의 첫 만남은 수년 전, 아버지와의 재회가 있었던 그해였다. 스님은 자식 된 도리를 못한 나 자신의 업을 깨우치게 해주셨고, 내 삶의 나침반이 되어 주셨다. 늘 사바세계의 업에 휘감겨 좌충우돌하고 있을 때 나를 바로잡아 주신 바로 그분이

다. 어디 그 뿐이겠는가,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다 함께 공존공생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 무엇이 순리고 무엇이 순리에 역행하는 것인지도 일깨워 주셨다.

지금 내가 차지한 이 공간에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다. 나 아닌 그 누군가를 위해 가진 것들을 공유하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하는 마음만 가진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터인데 눈앞에 보이는 유형의 물질에 의존한 나머지 무형의 재산을 멀리하고 사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다들 다급해지고 여유가 없어 바빠지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넘치는 물질로 자신을 얽어매고 끝내는 자신을 가두고 만다. 그래서 영혼의 눈이 멀어 가치의 기준마저 흐트러지고 만 것이다.

현대사회가 가져다 준 물질의 풍

요로움이 정신세계의 결핍을 가져왔다. 정신의 질보다도 물질의 양이 도덕과 윤리를 가늠하는 현실 세계에서 사는 인간의 존엄을 가늠하는 기준마저도 재물에 따르고 있다. 흔히 말하는 돈이 양반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인간세계에서 취하지 못한 것들을 동물로 채우려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닌 물질과 애완동물이 사는 현대사회가 되어버렸다. 심지어 부모·형제 그리고 내 이웃보다 내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을 상전처럼 모신다. 씻겨 주고 닦아주고 거액을 들여 공을 들인다. 그러나 부모·형제와 내 이웃에게 공을 들이는 것은 복잡한 이해타산이 결들여진다. 그들의 정신세계에서는 이웃보다도,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나를 낳아 준 부모보다도 애완동물이 더 소중할 수도 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먹고 살기 위한다며 병들어 신음하는 부모는 나

몰라라 하는 인간동물이 혹시 내가 아닌가 돌아보자. 가신 후 한 말의 눈물보다 지금 전하는 마음 하나가 더 값질 것이다. 돌아가시고 나서 푸짐한 재물을 들여 제를 올리는 것보다 가신 님의 유지를 받들어 오늘을 사는 모습이 가신 영령에 대한 존경이 아닐까.

스님은 내게 오늘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현대사회에서 인간동물이 아닌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일러주셨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의 인연을 지금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스님이 아니었다라면 어쩌면 부모·형제는 지금 내 곁에 없을지도 모른다. 아니 내가 사바세계에서 맺은 인연만큼 내 가슴에 피멍으로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스님이 주신 또 다른 영혼의 생명으로 아버지와 함께하며 오늘을 살고 있다. 늘 감사하는 마음 하나로 나를 마중 올 아버지를 기다리며, 그리고 햇차를 기다리며.

‘비난 판단 평가’

글 • 고헌희(공감대학 개발원장)

잘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에 몰두하며 길을 걷다가 누군가가 내놓은 흙만 있는 화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다친 상태로 집에 갔습니다. 집에 있던 가족이라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 적어보세요.

가족이 하는 말 :

가족이 ‘또 넘어졌지?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걸어 다니니?’ 라고 말하면 속상하겠지요? ‘에고, 또 넘어졌어? 많이 아파?’ 라는 공감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비난’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꼬집어 나쁘게 말하는 것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우리가 하

는 말에 비난의 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시나요? 남의 허물이 보이거든 그 눈을 안으로 향하여 나의 허물을 찾고, 고쳐나가야겠지요? 또, 우리들의 말 중에는 본인이 기준점을 세워놓고 그 기준점과 비교하여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도 많습니다. 평가를 잘하는 것이 잘난 것이라고 인식되어 끊임없이 평가를 합니다. 강요하는 대화도 많습니다. 자신보다 어리거나 낮다고 생각되는 상대에게 주로 강요를 합니다. 강요하는 쪽도 강요를 받는 쪽도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비난과 평가와 강요는 공감대화에서 버려야 하는 대화형식입니다.

상대가 고쳤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하였을 때 ‘네가 하는 것이 그렇지 뭐!’ 라고 하면 비난의 말입니다. 비난받은 사람은 위축됩니다. 그리고 반감이 생깁니다. 이 반감은 자신을 공격하고, 상대를 공격합니다. 스스로 공격받은 사람은 자존감을 키워 나갈 힘이 없어집니다. 비난은 불편함을 만들고, 불편함은 상대를 할겁니다. 자신이 받은 비난을 돌려주려고 더 심한 비난을 하곤 합니다. 이 경우 비난하지 않고 공감대화로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또 보니 엄청나게 답답하다, 고쳐지기를 바랐거든.’ 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편의를 더 고려하여 어떤 결정을 하였다고 생각되었을 때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자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자라는 평가는 말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평가의 말보다는 ‘그 결정을 보고 안타까웠어. 많은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으로 결정되기를 바랐거든.’ 하고 공감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폭력은 절

대 나쁘다’라는 기준을 세우고 살아 가는 사람이 가족의 치명적 위협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할까요? 임진왜란 때 승병으로 참여한 사명당 대사가 일본군과 싸운 것을 나쁜 일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반야심경에 ‘불구부정 부증불감이 있습니다. 깨끗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결코 진리일 수 없고, 늘고 줄고 하는 것에 흔들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기준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것이 기준입니다.

우리 사회는 쉽게 나이에 의해, 지위에 의해, 돈 등에 의해 강요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수동, 복종, 군림의 사회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원하시나요? 이해, 상호 존중과 배려의 사회를 원하시나요? 배려가 가득한 사회를 원하신다면 강요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어른의 말을 듣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어른의 말을 맹목적으로 들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

이의 키에 맞게 자세를 낮추고, 눈을 맞춘 후 ‘네 의견은 어떠니?’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물어보세요. 새로운 희열의 세계를 만나실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도 굴레를 씌워 강요하지 마세요. ‘아버지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해!’ ‘엄마니까 밥을 해야 해!’ ‘어른이니까 아파도 참아야 해!’라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아버지, 엄마, 어른 등의 신분에 의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신분이더라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분, 나이, 지위에 강요당하지 않고, 자발적 결정에 따르십시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자신의 결정을 넣어 이렇게 바꾸어 말해보세요.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로 결정했어!’

‘가족이 좋은 질의 음식을 먹고,

건강하길 바라기 때문에 밥을 하기로 결정했어!’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 창피해질까 봐 꼭 참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바꾸어 말해보면 모든 결정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결정한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신분 때문에 등 떠밀려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 부양을 원하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서 이 일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나’입니다. 가족들의 건강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만실에 들어가면서부터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아얏~’ 소리도 없이 참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옳지도, 누가 그르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결정한 대로 할 뿐입니다. 지구 위의 사람 숫자만큼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편안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元宵玩月(원소완월)

글 • 소룡(小龍) 이용현(독자)

桂影婆娑大地流 (계영파사대지류) 하고
 山月孤來瘦影疎 (산월고래수영소) 하니
 斜穿樹裏聽鶯鶯 (사천수리청경작) 하고
 直射窓門數泛鷗 (직사창문수범구) 하네
 桂樹瓊泉火兔生 (계수옹천화토생) 하고
 五穀飯進采鞦韆 (오곡반둔채추천) 하니
 春風不改舊時波 (춘풍부개구시파) 하고
 離別家鄉歲月多 (이별가향세월다) 하네

(國譯) 대보름날 밤의 달구경

계수나무 그림자는 너울거리며 대지에 흐르고
 나뭇잎 우거진 그림자 산에 우뚝 솟은 달 비치니
 나무 그늘 사이를 뚫고 놀란 까치 울음 들리고
 달빛이 창문에 비치는데 몇 마리 갈매기가 떠 있네.
 불꽃놀이 토끼가 살고 있는 계수나무 옹달샘
 그네 타고 오곡밥에 다섯 가지 나물 먹으니
 옛날의 달빛과 봄바람이 새롭게 거듭하고
 오랜 세월 고향 집 서로 갈리어 멀리서 생각하네.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14일로 다가왔습니다.

중생들의 구제를 위해 자비의 가르침을 퍼신 부처님의 뜻을 따라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운동을 펼칩니다.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은 법정 스님이 불일암에 머무르실 때부터 주창하신 나눔 운동으로 나 자신이나 내 가족, 친지가 아닌 우리 곁의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을 위해 연등을 밝히는 취지로 맑고 향기롭게 모임에서는 1995년에 처음 시작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운동의 취지는 본모임이 결연

을 하고 있는 재가복지사업 대상자 중 어려운 형편으로 연등을 밝히지 못하는 불교 신도를 위하여 길상사 도량에 자비의 연등을 밝히는 것이며, 동참금은 전액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반찬 나눔 대상자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데 사용됩니다.

중생들을 모두 깨달음에 이르게 하겠노라는 서원과 함께 속세로 오신 부처님처럼 나의 마음과 내 가족의 행복은 물론이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연등 하나 환히 밝히시면 좋겠습니다.

입금을 해주실 때 자신의 이름 옆에 ‘자비’라고 써주시면 자비의 연등 동참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의 동참금은 최소 10,000원이며
 입금처는 ‘결식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맑고 향기롭게)’ 입니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2016년 숲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안내

- 주제 : 숲과 전통시장을 찾아서
- 5월 12일(목) : 강원 함백산 적조암 숲길, 정암사 - 정선 정선장(고추, 황기, 마늘) / 5월 일정은 연등축제 참여 및 교통 통제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일정을 변동하였습니다.
- 6월 4일 : 전북 모악산 김제관아, 금산사 - 김제 원평장(생선, 산지부산물, 고추)
- 7월 2일 : 충남 상왕산 목초지와 숲, 개심사 - 서산 서산장(어리굴절, 생강, 마늘)
- 참가방법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이상 ~ 만 65세 이하
 - 접수 : 5월 숲기행은 4월 4일(월)부터, 6월 숲기행은 5월 16일(월)부터 중앙 사무국으로 선착순 40명 전화 및 방문 접수
 - 준비물 : 식수, 간식, 모자, 등산화, 필기구 등 (비 올 가능성이 있는 날에는 우비 준비)
 - 참가비 : 35,000원(장터 점심 식비 포함)
 - 입금처 : 외환은행 301-22-00270-1 / 예금주: 맑고 향기롭게
- 참가비 환불 원칙
 - 참가비 입금은 신청 후 5일 이내로 하셔야 하며, 참가비 환불과 이월은 출발 5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 취소 시 결식 후원금 처리하오니 신중하게 신청해주세요. (반반한 취소, 변동을 줄이고자 함)
- 장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접수처 : 중앙모임 02-741-4696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 활동 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밑반찬을 지원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치 않고 씩씩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전화 말벗 자원 활동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대상자 중 홀몸노인, 장애인 등에게 봉사자가 가정에서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지켜보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 활동

진인요양원 자원 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정기 자원 활동(매주 월요일,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 활동은 어르신을 위한 점심 무료급식 활동으로 배식, 설거지 등을 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봉사팀은 봉사 당일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 '아름다운 만남' 청소년 정기 자원 활동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홀로 어르신의 집을 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말벗과 청소를 해드리고, 안마나 동네 산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생동감과 발달함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축된 어르

신을 위로하고, 생의 의지를 돋우는 프로그램입니다.

*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녹색 장터를 통해 판매,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모임은 매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4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4월(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일요특강 '길상사 오감 경영 아카데미': 김선우 작가 / 24일(일)오전 11시 / 길상사 설법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목, 금요일(1,7,8,21,22,28,29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3월~11월 둘째 목요일(14일)/맑고 향기롭게 반찬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매주 월요일(4,11,18,25일)/매월 첫째 일요일(3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노인 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둘째 일요일(10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넷째 화요일(26일)/오후 1시30분/사무실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셋째 토요일(16일)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 24일(넷째 일)/길상사 경내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매주 화요일(5,12,19,26일)/세계일화실
- 의류 리사이클링 강좌모임: 매주 금요일(1,8,15,22,29일)/세계일화실
- 녹색 나눔 장터: 24일(넷째 일)/길상사 경내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짜수달): 6,20,27일(수)오후 1시30분(삼푸,에센스, 비누&스킨)/세계일화실/선착순 최대6명/재료비 본인 부담

(정기 재정 후원)

-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정기 후원
- 서울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아동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외환은행 141-22-01683-9

• 예금주: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02)741-4696



대구모임 (053-753-8883)

- 정기 홍보활동: 맑고 향기롭게 스티커, 홍보책자, 동전 모금통을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 배포 및 홍보활동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매주 수요일/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봉사/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어르신 웃음교실 및 토요 경로급식: 매주 토요일/10시 30분-음식조리/11시 30분-웃음치료강의/12시 30분-점심 및 차담/2시-마무리
- 연꽃 피는 집(차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매월 첫째 화요일 11시

후원: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사파복지회관: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해 뜨는 교실: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문화기행: 문화유적답사, 숲기행, 강길따라걷기/주변 환경 정화활동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화원 만남의 날: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후원: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보현행원: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매주 수요일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매주 목요일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매주 금요일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매월 둘째 목요일

-지역정화활동: 매월 셋째 화요일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매월 셋째 화요일

-부산진구 독거노인 밀반찬봉사: 매주 수요일

-연화원 대청소: 매주 목요일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밀반찬 배달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매월 2,3주 토요일

• 숲가행 자연보호활동: 매월 4주 월요일

후원: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2시,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간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후원: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매일 오후 2시
- 장소: 극락전
- 동참금: 5만원 / 각 회차
- 동참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매일 20가구씩 차례대로 축원을 올려드립니다.
- 설판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관음재일 기도 (음 3. 24)

- 일시: 4월 30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4월 7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지장재일 기도

- 일시: 4월 24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지장전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4월 9일(토) 오후 8시 30분 ~ 10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극락전

기도 일정		
회차	입재	회향
1차	2016-02-10	2016-05-19
2차	2016-05-20	2016-08-27
3차	2016-08-28	2016-12-05
4차	2016-12-06	2017-03-15
5차	2017-03-16	2017-06-23
6차	2017-06-24	2017-10-01
7차	2017-10-02	2018-01-09
8차	2018-01-10	2018-04-19
9차	2018-04-20	2018-07-28
10차	2018-07-29	2018-11-05

천수다라니기도

- 일시: 4월 2일(토) 오후 7시 / 장소: 극락전
- 축원비: 5천원 / 개인 축원
- 주지스님을 비롯해 전 대중스님이 동참하는 특별한 다라니기도입니다.

관음재일 기도 (음 2. 24)

- 일시: 4월 1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경전반 수강생 모집

- 과목명: 금강경
- 강사: 인오스님
- 개강일: 4월 19일(화)
- 시간: 오후 1시 40분
- 장소: 설법전
- 문의: 총무소 02-3672-5945

※ 저녁예불 시간 변경 안내

4월 1일부터 저녁예불 시간이 오후 6시에서 7시로 변경됩니다.

4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4월 2일	오후 7시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4월 9일	오후 8시 30분 ~ 오전 3시 50분	극락전
관음재일	4월 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4월 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4월 24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4월 30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 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 오전 9시 50분/저녁 7시	지장전
금강경 천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세심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회의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소강당



사진·진각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이란 말을 들을 때 마다
몸과 마음에 전율 같은 것을 느낍니다.
과연 제 자신이 맑고 향기롭게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묻게 됩니다.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뜻하고,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입니다.
'맑고 향기롭게'라는 이 말은 이 도량이 존속하는 한
이 도량과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화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12월 14일 길상사 창건 11주년 법문 중〉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 템플스테이

편리하고 빠른 세상입니다.
그러나 편리하고 빠른 세상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마음 쉴 틈 없고,
마음 나눌 틈 없이 바쁜 세상 속에
내 마음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나를 만나고 서로를 알게되는 곳
참 나를 찾고 새로운 인연이 이어지는 곳
그 곳이 바로 템플스테이입니다.

무심히
마음에 여백 한 공간을 만들고 싶을 때,
마음 비울 곳 하나 추천드립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찾는 맑고 향기로운 여행길!
‘길상사 템플스테이’입니다.

길상사는 템플스테이를 한 달에 두 번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길상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문의: 3672-0036, 3672-5945

